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청주상당신희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 동반자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손길로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금융기관이 있다.

'꿈이 있는 신희, 미래가 있는 신희'이라는 경영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소상공인 지원, 소외계층 돌봄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청주상당신희의 그 주인공.

'어부바플랜 결연 사업, 장학금 지원, 행복한 집 프로젝트, 어부바멘토링'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부터, 연탄봉사, 김장김치 나눔, 세탁봉사까지 지역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단순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주민의 필요와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실천에 집중하는 점이 청주상당신희 사회공헌의 특징이다.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 주민, 지자체, 협력기관과 함께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있는 활동을 이어갈 청주상당신희의 이성희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청주상당신희는 64년 전 "한 명의 부자보다 더불어 잘 사는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신희의 정신을 이어 받아, 오랜 세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꿈이 있는 신희, 미래가 있는 신희'라는 경영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핵심 과제를 추진해 왔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 공헌'으로 인정받은 신희이다.

이를 위해 지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행사 개최,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기부, 어르신 생활 지원,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전달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꾸준한 실천은 조합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를 더욱 깊이 체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청주상당신희의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 돌봄 두 축에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는 '어부바플랜 결연 사업'이 있다. 협약을 맺은 소상공인의 매장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 또 앞치마 등 소모품을 지원하고, 매년 약 2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해 조합원 이벤트 경품으로 제공한다. 해당 상품권은 협약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청주상당신희 전경.

어부바플랜 결연사업·장학금·봉사활동 등 맞춤형 나눔 실천 금융 서비스 넘어 삶의 질 향상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펼쳐

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소외계층 돌봄 사업도 다양하다. 저소득층과 조합원 자녀,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지원, 풍란 전시회를 통한 성금 모금(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전통한지를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행복한 집'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임직원과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어부바박스' 생필품 지원, 연탄 나눔, 김장김치 봉사, 매월 어르신 이미용 봉사, 지역아동센터 대상 금융교육 '어부바멘토링',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저소득층·독거노인 세탁봉사 등 지역 곳곳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사회공헌 활동이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그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의견을 꾸준히 듣고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임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현장에서 얻은 피드백을 다음 활동에 빠르게 반영하며 걸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실질적인 도움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한다.

이 같은 진정성 있는 접근이 청주상당신희 사회공헌 활동의 뿌리이자 원칙이다.

–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난관은 없었는지?

가장 크게 부딪힌 어려움은 바로 '인력 부족'이다. 금융 업무만으로도 바쁜 상황에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한 가지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기획부터 실행, 결과 보고까지 많은 인력이 필요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때로는 업무 시간 외에도 모여 행사를 준비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점차 조직문화로 자리 잡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조합원들까지 더해진 활동 현장은 언제나 보람과 따뜻함으로 가득했고, 이 같은 따뜻한 마음들이 바로 청주상당신희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소감은?

우선 지금까지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이 의미 있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동시에, 이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든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 기반 신용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달라는 응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원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변화하는 지역의 요구에 맞춰 진정으로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설립 초기부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해 온 신희의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주민, 지자체, 여러 협력 기관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충북도는 각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산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충북도, 경로당 위문·행복 나눔 배식 봉사활동

김영환 지사, 도내 기관과 함께 삼계탕 배식 나서

충북도는 폭염 대비 경로당 위문 및 복지관 경로식당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는 청주시 산남주공 4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회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비 건강수칙 등을 잘 준수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를 당부했다. 또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준비한 건강물품도 전달했다.

경로당 방문 후 김영환 지사는 인근 산남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홍영)으로 이동해 경로식당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한노인회 충청북도 연합회(회장 이명식),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장현봉),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사회복지법인 한전복지재단(대표 김경배), 충청

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충청북도사회복지서비스원(위원장 이장희) 등이 함께했다.

김영환 지사와 관계자들은 중북을 맞아 경로식당을 찾은 19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배식하며 안부를 확인했으며, 배식 봉사 후 점심 자리에서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환 지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로 힘들어하고 있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 독거노인 안부 확인, 노인시설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며 '건강한 충청북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북,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평가 '우수 지자체'

지역 여건 반영한 통합관리체계·우수사례 연계 성과

충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전국 17개 시·도의 2024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와 평가회(3회)를 통해 총 2개 분야 11개 하위지표에 따라 정량 및 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충북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입체계를 구축하고, 광역단위에서 시군 지원체계, 환류, 포상, 자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돌봄로봇, IoT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정책성과로 연계한 점도 주목받았다.

특히 충북의 '지역복지 인프라 연계·활용 광역단위 사업개발' 사례는 광역단위 사업모델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사업과 고독사 예방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또 단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 체계를 강화한 점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홍지연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성과는 고독사 예방 사업 초기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내 고독사 예방을 위해 헌신한 민·관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군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단위 지원체계와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3조)

위탁부모가 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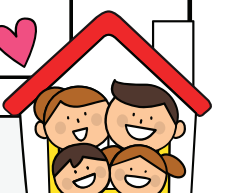
- 1) 아동에 대한 **애정과 사랑**
- 2) **25세 이상**, 아동과 **나이차 60세 미만**
- 3) 범죄전력 및 정신질환 **NO**
- 4) 친자녀수 **4명 이하**
- 5) 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신청 절차는?

- 1) 가정위탁 신청 및 접수
↓
- 2) 예비위탁 부모교육 수료
↓
- 3) 예비위탁가정 상담 및 방문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 043-250-1226



충북 ‘쉬는’ 청년 증가, 경제 부담 우려

최근 5년간 경제적 손실 44조 5000억원

충북도는 고용 지표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냥 쉬는’ 청년의 관리 필요성은 시급하다고 18일 밝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충북 비경제활동인구는 47만명이며, 이 중 15~29세 청년층이 12만 9000명으로 전체의 27.4%를 차지한다. 충북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 희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43만 6000명에 이르며, 이중 육아·가사, 재학·전학준비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6만 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구직 단념 청년(NEET) 증가 문제는 노동 수요 감소와 고용 창출 여력 약화로 지역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청년은 42만 1000명으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가 의뢰한 이미숙 창원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총 4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만 15세~29세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 비율과 총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교 이상 학력의 고학력 청년 비중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학력 ‘쉬었음’ 청년은 2019년 약 13만 3000명에서 2023년 15만 3000명으로 약 15.7% 증가했고, 전체 ‘쉬었음’ 청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p 상승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쉬었음’ 청년 임금 추정치가 취업 청년의 78.5~85.9% 수준으로,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쉬는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미숙 교수는 “고학력 청년이 경기 상황과 시장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일자리 진입을 결정하는 탄력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 대책으로 “조기 발견·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교육 수준별 맞춤형 지원 정책,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언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20원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 215만 6880원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만 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내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4인가구 649만원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

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산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완화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의료·요양 돌봄 추진본부 출범

‘돌봄통합지원법’ 내년 3월 27일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는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 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 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 의료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통합돌봄 전국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장학금 내달 10일까지 신청

주거안정장학금·근로장학금 등 통합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10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정한다. 특히, 이번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이 인상된 60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

원)이 인상된 440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이 인상된 360만원으로 높아진 다. 다만, 이는 연간 지원 단가이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지원 단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1~3구간 학생의 경우, 6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1 유형, 다자녀 장학금 외에도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로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025년 신설됐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교내·외 근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의 기준에 따라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다. 이번 2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신청 기간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단,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 가능).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니,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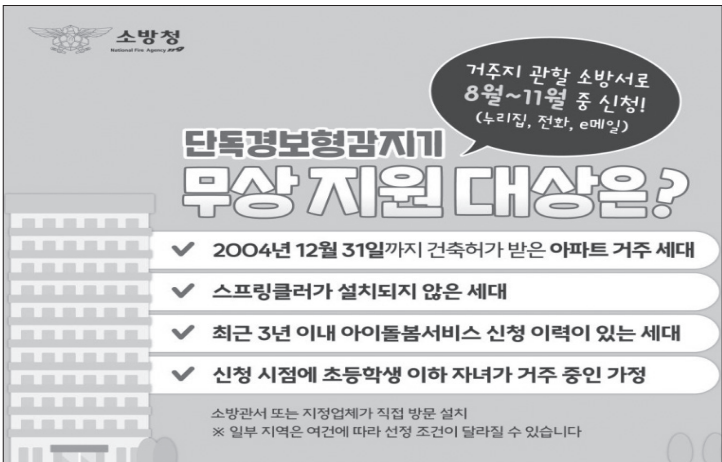
국민권익위, 장애인등록증 영문 표기 도입 권고

할인 혜택 등 정보제공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에서도 장애인임을 보다 쉽게 증명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영문으로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입장 등의 혜

택을 제공하는 곳이 적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종이 문서로 발급돼 훼손이 쉽고 보관이 불편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우선 입장이나 무료·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해외 주요 관광지나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

어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여행 전 다른 여행객의 후기를 검색하거나 해당 대사관에 질의하여 정보를 얻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을 통해 안내하도록 외교부에도 권고했다.



무상지원 주요 대상 안내 인포그래픽.

소방청 ‘단독 정보형 감지기’ 지원

돌봄 공백 세대 대상… 11월까지 관할 소방서 신청

소방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택 화재로 안타깝게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정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6월 25일과 7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된 아이들의 사례를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다. ‘단독 정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무상 지원의 주요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가정이다. 신청은 11월까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유선,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세대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 등 홍보도 병행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건에 따라 세부 지원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제25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에 출전한 충북아동복지협회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아동복지협회, 꿈나무체육대회 쾌거

중등부 계주 '금'·배드민턴 '동' 획득 성과 “선수단 성장 기회… 열정·도전에 박수”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권현숙)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대전대학교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

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남자 축구(초등부·중등부)와 여자 계주(초등부·중등부), 배드민턴(초등부·중등부) 종목에 출

전했다. 이 가운데 여자 계주 중등부가 금메달을, 배드민턴 중등부가 동메달을 따내며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또한 축구 중등부, 계주 초등부, 배드민턴 초등부 선수들 역시 본선에 진출해 기량을 뽐냈다. 권현숙 회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구슬땀을 흘

려온 선수단의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원 덕분에 큰 부상 없이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회가 아이들에게 값진 성취감과 함께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캄보디아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캄보디아 의료봉사 ‘사랑 전파’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대학은 최근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의사회가 주관한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간호대학 교수와 학생 13명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충청북도의사회 의료진과 자원봉사

자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지에서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인들과 교류했으며, 바자회를 열어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슬리퍼와 비즈 반지를 선물했다.

문서경 간호학과 학생은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소자 간호학과 교수는 “충청북도의사회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타 대학 학생들과 협업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인 창의·품성·봉사를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한 전공분야 직무 능력과 글로벌 취업 역량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노인종합복지관, 영상기록 시니어 강사단 출범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 최선

충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은 19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영상기록 시니어 전문강사단 '비상'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사단의 상징성과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2023년 제정된 '디지털 포용법' 이후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은 단순한 위촉식이 아닌 영화 시상회 형식으로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행사 주제인 시니어 무비 '다



충북노인종합복지관은 19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영상기록 시니어 전문강사단 '비상' 출범식을 개최했다.

시, 불'에 맞춰 레드카펫 입장, 포토존 촬영, 예고편 영상 상영 등이 이어지며, 시니어 강사단을 인생 2막의 주연배우로 조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북 시니어 유튜브로 활동해 온 김만수, 변종숙, 이대행, 채수덕, 최영은 등 5명이 강사단으로 선발된 이후 첫

공식 활동을 선보였다. 이들은 토크 콘서트와 인터뷰를 통해 경험과 포부를 나누고 직접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노래 '강사들의 합창'을 무대에서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도 노인종합복지관은 영상기록 시니어 전문강사단 비상이 세대 간 소통과 지역사회의 집단기억을 형성하고, 시니어들이 단순한 기록의 대상이 아닌 기록의 주체로 당당히 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상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강의와 콘서트 제작 활동을 이어가며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격차 해소를 선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11일 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4차 업무협약식에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SK하이닉스, 청주시 취약계층 '통 큰 나눔'

노인 대상포진 접종 5000만원 냉방용품 구입 상품권 1억원

청주시는 11일 SK하이닉스(대표 박노정)가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과 저소득가구 냉방용품 지원 사업에 총 1억 50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먼저 개최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4차 업무협약'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이일우 SK하이닉스 부사장,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54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접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SK하이닉스가 접종 비용 5000만원을 후원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예방접종 실무를 담당하고,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투명한 기금 집행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온누리 상품권 기탁식이 진행됐다. SK하이닉스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냉방용품 구입 지원금으로 1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쿠폰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기탁된 온누리 상품권 쿠폰 1억원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시 저소득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냉방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2024년부터 청주시에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 특별지원, 드림스타트 아동지원, 장애인 가구 생활품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쿠폰 지원 등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방안 등을 모색하는 '2025 제2회 충북 SR포럼'을 주관하며,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제천지역자활센터, 무상 의료지원 서비스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건강한 삶 지원

제천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미숙)가 지역 내 의료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으로, 제천 시의원 거주자를 우선한다. 이번 사업은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제천지역



제천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8일 맥한의원과 무상 의료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자활센터는 한방진료 기관인 '맥한의원(원장 광건신)'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차 진료와 침 치료, 건강 상담, 질병 예방 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후 의료진

이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숙 센터장은 “지역사회에 의료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 보장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복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무상 의료지원사업은 지역 내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천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옥천군가족센터, 위기가정 발굴·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금 제공 12월까지 사례 관리 서비스

옥천군가족센터(센터장 신현숙)는 최근 KBS강태원복지재단 마을단위 NPO 협약을 체결해 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위기가정 긴급발굴·긴급지원 사업'에 선

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들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가족

센터(☎043-733-1915)로 문의하면 된다. 신현숙 센터장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편 옥천군가족센터는 국적에 관계없이 자립 의지를 가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온가족 보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2025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 발간



470여 개 복지정책… 신규 복지제도로 복지체계 강화 기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보건복지부는 전(全) 부처 47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하여 ‘2025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되어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권(총 425쪽)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중장년·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했다.

또한, 2025년 신규 복지서비스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취업·창업·영농지원사업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으로 복지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자립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22p),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25p),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31p),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53p),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55p)

생계 지원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765,444원, 의료급여 966,805원, 주거급여 1,148,166원, 교육급여 1,196,007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95만 1,287원에서 60만 원을 뺀 139만 1,287원 지급(연 단위 월액)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능력평가, 희귀·중증난자성질환자, 중증질환자(임상치,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상태가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미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강·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금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임차료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임차료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침수피해우려가구 :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급여종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교	초등학생	487,000원	-	-
	중학생	679,000원	-	-
고등학교	고등학생	76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액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연 1회 (학교로 실비 지급)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생애별은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나하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돕습니다.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68p),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73p),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74p), 여성이 일하고자 할 때(78p), 여성이 기업운영을 원할 때(79p),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82p),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84p)

취업 지원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생활안정 지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수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수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4,192원), 예수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수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방법

• 퇴직 후 신분을 증명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장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6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환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형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96p),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111p), 아이육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118p),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128p), 방과 후 돌보아줄 손길이 필요할 때(135p)

임신·보육 지원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처(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내용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후 비용 지원(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상당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필수 검사항목: (O)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AMH), (H) 정맥경사(장자정맥혈행태검사)

방법

• 온라인(보건소, ☎www.health.go.kr)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 비노의학과) 방문하여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보건소 > 민원서비스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기관 확인하기 Click)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소급지원불가 : 먼저 신청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에 검사 실시

* 단, 검사 당일 신청 시 예외 적용 가능

자주 하는 질문

검사의뢰서를 꼭 지참하여야 하나요?

• 네, 검사지침서는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가 지원사업의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검사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지역·결혼여부·자녀수 무관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합니다.

●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140p), 교육비가 부담될 때(160p),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184p),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받고 싶을 때(187p)

청소년·청년 지원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보호 및 자립지원)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돌봄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대상

12세 이하(초등학교 5학년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양육환경·아동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양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안전실태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방법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시군구 드림스타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내용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언고 아동 손상사고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방법

아동관리보장실 실종아동전문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

• 아동관리보장실 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 경찰청 인전Dream(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182)

●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190p),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196p),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200p),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203p),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207p),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212p)

보건의료 지원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건강보험제도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장인상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잠자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월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요양비	방·약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 (근태) 임신의 경우 태아 당 100만 원, 분만 휴약지 거주 임신부는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부모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 합니다.

● 어르신들, 생활과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재정, 의료, 일자리 등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216p),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220p),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222p), 치매가 걱정될 때(224p),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226p),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231p),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234p)

노령층 지원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습니다.

기초연금제도

대상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내용

월 최대 34만 2,51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8,000원 (1인당 최대 27만 4,000원)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요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미는 서비스(☎1365)'를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6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은 근로의예이 저해되지 않도록 월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별과 불편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힘을 드립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238p),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243p),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248p), 일자리가 필요할 때(251p),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265p),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269p),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279p),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287p),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290p),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293p)

장애인 지원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인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명서류
- 장애정도 심사를 전제로 시·군·구별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① 장애인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③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④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출처:보건복지부>

복지광장



박 재 수

충북사회복지자협회 사무처장

우리 사회에서 복지서비스는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절실해진다. 고령사회, 경제 위기, 고독사, 학대·폭력 등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사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시설, 기관, 단체 등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 사례관리, 자원 연계, 위기 개입, 지역사회 조

직화, 민·관 협력 등 그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방문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노인을 긴급 보호하며, 자립이 필요한 청년에게 적절한 지원을 연결해 주는 일은 사회복지사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처럼 현장 중심의 복지 실천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업무이며, 이들의 업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지망하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과도한 업무량,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정서적 소진은 사회복지사들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히 종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사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인력 부족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부족하며,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감정 노동자이자 행정가, 상담가, 위기관리 및 대응자로서 활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낮은 임금의 업무가 많으며, 특히 고용 안정성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실적 중심의 평가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또 다른 문제는 정서적 소진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안전 및 폭력경험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70%가 최근 5년 동안 언어·정서·신체·경제적 폭력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중 1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증상을 호소하나 대부분 이를 참는다고 보고했다.

복지 현장은 감정 소모적인 일들이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때로는 폭언이나 위협에 시달리는 등의 크고 작은 감정적 소진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 지원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

장기적인 감정 소진으로 쌓인 스트레스는 우울감, 번아웃, 직무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며, 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 현장은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공간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이 보장될 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어쩔 수 없는 직업적 위험'으로 여겨졌던 문제들이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공동과제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며, 이제는 마땅한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권익 보호, 복지 질 향상의 출발점

복지칼럼

분단 80년, 우리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송 은 하

충북하나센터장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일정 기간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나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전입하게 된다. 충청북도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충북하나센터 직원들이 하나원을 방문해, 사전에 배정된 충북 지역 거주지로 전입을 지원하고 있다.

전입 이후 하나센터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교육과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하며,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전입자를 인수하러 하나원을 방문할 때마다, 대한민국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각오와 설렘이 그들의 표정에서 느껴지지만 지역으로 전입한 이후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낯선 지역에서 혼자 지내는 외로움과 고독감,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역사회의 불편한 시선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독거·무연고자의 상당수가 각종 질병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충북 지역에서 무연고자 3명이 사망했다.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할 경우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그리고 지역 하나센터가 장례를 주관하며, 별도로 마련된 추모관에 모신다. 추모관에 모신 뒤에는, 생전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기도 한다.

7월 14일은 법률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통일부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행사가 열렸으며, 충청북도에서는 7월 19일 충주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와 북한이탈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사에서 "80년간 분단된 조국의 아픔과 고단함을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서 짊어지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생활하시다 보면 언젠가 통일이 되어, 꿈에 그리던 고향에 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라고 말을 전했다.

필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통일이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고향에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번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제는 '다름이 하나 되어 함께 만드는 미래'였다. 사실 우리는 태어난 지역만 다를 뿐, 한민족 한 핏줄이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는 날, 그날이 바로 통일의 시작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온전히 배려하고 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을 만났을 때는 편견 대신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넓은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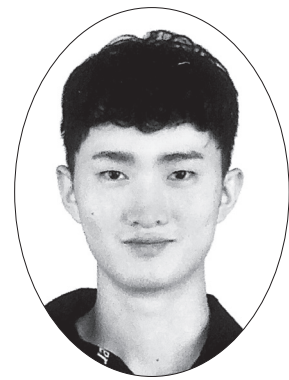
최근 무연고·은둔형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속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 이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남북 분단의 현실이 원망스럽다. 특히 올해 같은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소형 임대아파트에 홀로 고립돼 있다고 생각하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현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조급씩 고민하는 듯 보인다. 분단 80년이 되는 올해가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 주민들에게 한 가지 조심스럽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 고령자와 중증 질병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충북하나센터(☎043-231-8045)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과 나눔이 이분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다.

끝으로, 8월 폭염 속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충북하나센터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현장의 목소리



정 하 준

직지드림플러스 보훈작업장 직업훈련교사

"선생님, 저는 월요일이 제일 싫어요."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내게 다가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이유를 묻자, 주말에는 집에서 쉴 수 있는데 월요일만 되면 또 나와서 일해야 한다면 두렵기만 하다. 나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어주다가, 말이 끝나면 이렇게 답한다.

"선생님도 똑같아요, 그래도 월요일부터 힘 빠져 있으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쉼을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A씨는 정말 선생님도 그런지 묻고, 주말에는 뭐 했는지 궁금해하며

처음보다 한결 나아진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러곤 휴대폰으로 스포츠 경기 영상을 보다가 작업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작업장으로 성큼 들어가는 일을 시작한다.

A씨는 매번 출근이 싫다고 투덜거리지만, 막상 작업에 들어서면 누구보다 꼼꼼하고 집중하는 모습은 언제나 변함없다. 사실 같은 작업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일이 익숙해져 능률이 오르기 도 하지만, 처음의 긴장이 사라지면서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다. 하지만 A씨는 늘 똑같이 정확하고 성실하다. 불량 하나 없이 언제나 같은 태도로 일한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다가와 말한다.

"선생님, 이거 말고 다른 작업 없어요? 재미없어요." 우리의 대화는 늘 이렇게 반복된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다. 정말 재미 없느냐고.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느냐고, 이렇게 지루한 일을 참고 해내는 이유가 무엇인냐고 묻자, A씨는 단 순하지만 분명한 대답을 내놓았다.

"월급 반값이요, 월급 받으면 아빠랑 야구 보러 갈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나중에 돈 더 많이 벌면 아빠랑 자주 놀러 가고, 커피도 배워서 바리스타 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묵직해져 내려앉았다.

A씨는 매일 똑같은 하루,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 속에서 다가올 행복을 바라보며 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기도 했다.

일을 하며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런 시간을 견뎌내며 더 나은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를 꿈꾸는 나. 월급날이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갖고 싶던 것을 사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나.

A씨와 나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행복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점에서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 행복을 위해 스트레스를 참고, 지루함도 견뎌내는 마음까지도.

누군가는 말한다. 장애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그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동등한 존재라고, 우리 모두 저마다의 행복을 위해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듯, 그들 역시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다고, 누군가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미

를 찾지 못해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A씨는 자신만의 이유와 목적을 품고 하루를 견딘다. 월급을 받아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꿈꾸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A씨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르지 않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위해, 또 누군가는 아주 사소한 내일의 기쁨 하나를 위해 오늘 하루를 버텨낸다.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의 이유로 출근하고, 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묵묵히 해내는 하루의 연속.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힘이자 존재 증명이야 아닐까.

출고 외로운 한겨울이 지나면 제각기 다른 향기와 색을 가진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듯, 우리는 매일의 작은 한파를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내며 결국은 아름답게 피어날 꽃송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순간이 조용히 우리의 곁에 다가왔을 때, A씨의 월요일도 더는 싫지 않은, 기꺼이 시작하고 싶은 아침이 되어 있기를 기대한다.

반복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